

탑의 진화

⑥ 인도 산치의 불탑(2)

탑돌이 길 '요도' 만든 불탑의 새 모델

〈繞道〉

지난 호에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조성한 산지 제1탑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산지 제1탑의 탑문을 지나 탑신에 이르러 오른쪽으로 탑을 돌 수 있는 통로(사진1)가 있다. 이 통로를 요도(繞道)라 부른다. '회돌아 가는 길'이란 의미의 요도의 용도는 탑돌이를 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에서 탑을 도는 의식은 여러 신행활동 중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수행 방법의 하나였다. 이는 여러 경전에서 탑돌이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전에는 탑돌이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공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왜 탑을 돌라고 하셨을까? <불설유아여경>에서는 경의 주인공인 옥아라는 부인이 부처님으로부터 착한 아내와 악한 아내의 법을 듣고는 본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니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아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옥아 부인은 옥을 조각하고 비단에 수를 놓아 추보장을 만들고, 비단 깃발과 일산을 달고, 여러 가지 좋은 향을 사르고, 불탑을 돌며 염불을 하니 그 소리가 사방(8방+하늘과 땅)에 들렸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따라 기뻐하며 탑 앞에 예배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2권 864쪽 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불설사기라월유백경>에는 '부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므로 탑에 머리 숙여 합장하고, 돌면서 사방에 예배하라.' <대정신수대장경 1권 251쪽 하단>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처럼 부처님 재세 당시에는 부처님이 앉아서 면제자들이 부처님의 주변을 돌고 합장 예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은 바로 부처님으로 인식되어 탑을 도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나아가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의 탑에도 탑돌이를 하였다는 경설이 전한다.

<대방편불보문경>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십대제자인 지혜제일 사리불이 열반에 들자 대중들은 그의 사리를 거두어 탑을 조성하고 공양하였다. 이때 수많은 대중들이 탑을 돌며 사리불을 생각하면서 그리움과 아쉬움을 있었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149쪽 중>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경설로 미루어 보아 고대 인도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귀인의 탑을 도는 것이 일반화된 신앙의 한 형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탑돌이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전에는 어떻게 설명해 있을까?

<현우경>에는 전생에 황금을 너무 좋아하여 독사로 태어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승가에 금을 보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다시 태어난 범의 일화(사진2)가 있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369쪽 하단> 이 경설에서 주목할 내용은 대중들이 공양 때가 되면 한 줄로 서서 탑을 도는데, 출가자들이 앞에서 인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공양 전에 탑을 도는 의식이 있었고, 그 의식을 행할 때에는 출가자들이 앞장서서 대중들을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탑돌이를 할 때에도 출가수행자들이 선두에서 대중들을 이끌며 탑돌이를

보행하는 것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탑돌이의 공덕은 어떠한가?

<구잡비유경>에는 보다 구체적인 탑돌이 신앙사상의 근원이 되는 경설이 두 가지 전한다. 먼저 제 10편의 경설에서는 옛날 한 국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불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경하였다. 생소했던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끼리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이에 왕은 신하들에게 "끓는 술에 황금이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집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니 신하들은 "아무리 귀한 황금이라도 손으로는 끓는 술 안에 있는 황금을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러자 왕은 "찬물을 거기에 쏟을 수 있겠는가?" 물으니 신하들은 "가능하다고 답한다. 이에 왕은 탑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냥하는 일은 끓는 술과 같고, 향을 사르고 등을 껴며 탑을 도는 것은 찬물을 가져다 끓는 물에 쏟는 것과 같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512쪽 하단>라고 말하며, 탑돌이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구잡비유경 48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설이 전한다.

옛날 어떤 국왕이 도와 덕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탑을 돌았다. 백 번 돌기를 마치기 전에 변방의 어느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하였다. 신하는 매우 당황하여 적의 군사가 온다고 국왕에게 보고하면서 탑돌이를 그치고 돌아가 생각을 가다듬어 적을 물리치라고 간하였다. 이에 왕은 그 군사들이 여기 오는 것을 허락해 주라. 나는 이대로 불탑을 돌고 있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탑돌이를 하였다. 그러자 탑돌이를 마치기 전에 적의 군사들은 스스로 흩어져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518쪽 중>이다.

이 두 경설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이 탑돌이를 하는 것은 끓는 물에 찬 물을 붓는 것처럼 고통을 평정하는 선행의 의미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 제6권 '정행품' 에 의하면, 불탑을 도는 중생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도를 얻으려고 해야 하며, 모두가 바른 길을 닦아 부처님의 평등을 끝까지 밟으며, 일체중생이 모두가 성불하기를 발원해야 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0권 432쪽 하단> 라고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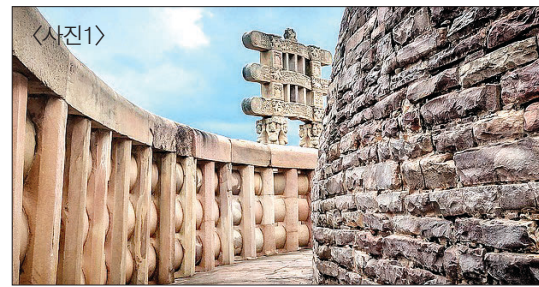
<우요불탑공덕경>은 탑돌이의 공덕을 보다 자세히 교설한 경전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리불이 불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공덕에 대하여 질문하자, 석가모니부처님은 계승의 형식으로 탑돌이의 공덕을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셨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탑돌이를 하면, 세세생생 팔난이 없어지고, 복과 수명이 길어지며, 가동과 용모가 단정해지며, 재물과 보배가 항상 가득하고, 다음 생에는 천상에 나게 되고, 항상 4년처와 4정근과 4여의와 4신족과 4진제가 있게 되며, 5근, 10력, 7가지 분과 8정도와 6신통을 얻게 된다.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중>과 설하고 있다.

이처럼 탑돌이의 공덕은 현재의 모든 복과 내세의 이상은 물론, 다음 생에까지 복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탑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산지의 불탑에는 아예 탑돌이 길을 만들어 후세의 모든 불탑 조성에 기준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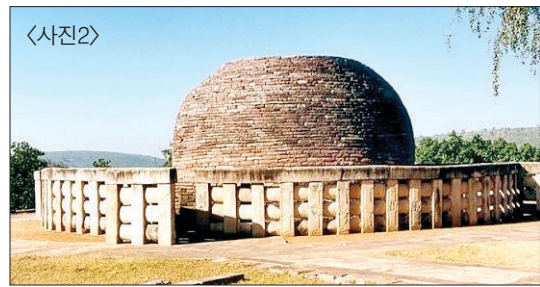


산지제1탑에서 동북방향으로 약45m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는 제3탑. 대탑과 같이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도와 낮은 담장의 역할을 하는 난순은 잘 보존되어 있다.

불탑 도는 '탑돌이' 부처님 예배하는 것  
대탑·3탑 '탑돌이' 위한 '요도' 설계  
오른쪽 회전은 태양계 회전 동조  
3탑에서 사리불·목련 사리 발견



산지대탑의 요도



산지 제2탑. 대탑의 서쪽 계단을 내려가 약 500m쯤에 위치한 제2불탑.

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탑돌이에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는 일정한 규범이 있다. 즉 신체 오른쪽 어깨를 탑 쪽으로 향하게 하여 돌아야 한다. 그 유래는 우요삼삼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우요삼삼이라는 것은 본존의 오른쪽을 지나면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는 신앙적인 불교 수행법의 하나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귀인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 때, 오른쪽 옆구리는 귀인을 향하게 하고 그 주위를 세 번 돌았다고 하며, 또 군대가 개선했을 때 돌아올 때에는 성벽의 주위를 세 번 오른쪽으로부터 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우주와 태양계의 회전 운동에 동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도는 우선 우주 자연의 정상적인 운동 원리를 여겼으며, 그 반대인 좌선은 우주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 배척하였다.

오늘날에도 불교 복식의례에서는 왼쪽 어깨는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여 스님들이 장삼으로 감싸 덮는 편단우건을 한다.

탑돌이를 보행할 때에도 우요삼삼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여러 경전에서 우요삼삼을 불탑신앙의 중요한 의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치한 제2불탑은 다른 산지의 불탑보다는 좀 더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기원전 2세기 경에 조성된 것이다.

다양한 모양의 동물과 꽃, 사람의 형상이 어우러진 원형 돌을새김에서는 옛 인도인들의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커닝햄의 발굴에 의해 이곳 불탑에서는 백색사암의 외부사리용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사리함에는 또 다른 사리용기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납작한 원형의 사리기가 4개 들어있었다. 그 사리용기 안에는 '헤마바타 (Hemavata)의 스승 카사파 고타 (Kasapacota)' 라는 명문을 필두로 열 분의 스님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헤마바타는 한역경전에서는 설산부(雪山部)로 칭하는 것으로 이 탑은 설산부의 승가에 소속되어 예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산지 제3탑(사진3)

산지 제1탑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45m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있는 제3탑은 규모가 제2탑과 비슷하다. 크기는 기단부 밑변이 약 10m이고 높이는 8m 정도이다. 탑신 정상에는 성스러운 상징하는 평두와 함께 돌로 조성된 일산이 하나있다. 산지 제1탑에는 일산이 3개가 남아 있지만 제3탑에는 한 개만이 남아 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불탑에는 일산이 조성되어진 이유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대반열반경>에는 "천룡성왕의 다비를 마치면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세우고 그곳에 비단 번기와 일산을 세우라" <대정신수대장경 1권 199쪽 하단> 하였으며,

<장야합경>에는 "세상에 마땅히 탑을 세워 향, 꽃, 일산을 비롯하여 기악으로 공양해야 하는 4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여래, 벽지불, 성문, 천룡성왕을 말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0쪽 중>라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고대 인도에서는 일산이란 빛을 가리는 용도 이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으로 사용되었으며, 고귀와 존경의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일산이 중국의 불탑에서는 수레바퀴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기로 한다.

산지 제3탑의 탑문은 남쪽에만 있으며, 대탑과 같이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도와 낮은 담장의 역할을 하는 난순(欄柵)은 잘 보존되어 있다. 평두 밑의 사리실에서 사리함 2개가 발견되었는데 사리용기의 명문에 의하면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사리임을 밝히고 있다.



글·우인보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요법·빙의치유법.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KBS, SBS, MBC, JTBC, YTN 등 다양한 방송 출연. 1회 무료수강 가능. http://www.hypnos114.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http://www.bulje.co.kr